

2013년 제7호
2013년 9월 6일 (금)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원지원센터

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

전화 : (070)7165-0017
전송 : (02)3401-6549
http://kaff.or.kr
kaff0001@gmail.com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 10주기 추모식

- 9월 11일(수) 오전 11시,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엄수 예정
 - 일시 : 2013년 9월 11일(수) 11:00
 - 장소 : 한국농업연수원(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813 (063-352-3051, 3052))
 - 식순
 - 오전 11시 :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걷기 대회
 - 오후 1시 : 기념 토론회(다시 만나는 이경해)
 - 오후 2시 : 이경해 열사 10주기 추모식
 - 오후 3시 : 묘역 참배(한국농업연수원 내 열사 내외 묘역)
 - 문의 : 한농연중앙연합회(02-3401-6543)

한농연 및 지역 농업 관련 소식

-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농신보 지원 한도 확대 방침
 -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농신보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등 대형 농어업사업자까지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 등을 검토키로 하였음. 아울러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를 검토하고 △도시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보증대상자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 특히 △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 등 예비 농어업인을 보증 대상에 추가하고 △우수농업경영인에 대한 우대 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음. 또한 △농신보를 활용해 종자 생산업체에 일반 자금지원, 농업 종사자 문화가정 우대보증, 농어업 분야 청년창업 우대 보증 등도 검토하고 있음
- 2013 농업·농촌의 길 토론회, 김준봉 회장 패널로 참여...대기업의 농업 부문 참여에 대한 견해 밝혀
 - 김준봉 본 연합회 회장, 9월 4일(수) GS&J 인스티튜트(이사장 이정환 전 농경연 원장) 주최로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농정, 바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서, "처음엔 대기업의 농업 부문 진출에 반대했지만, 대기업이 참여하면 가공·유통·수출 등에서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였음
 - 아울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이 대자본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상의하고 대화해 기업과 농업인이 서로 피해가 없는 방안을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언급함
 - 또한 "농업이 발전하려면 1차 생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 일정부분 함께 해야 한다"면서 "동부팜한농이 유리온실사업을 중단한 사안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음

- 강원도 철원군 동송농협, 오대벼 kg 당 수매가 1,650원으로
 - 강원도 철원군 동송농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올해 오대벼 수매가를 kg당 1,650원으로 결정해 지난해 1,570원보다 80원 인상(약 5% 정도 인상)하였음. 일반벼 가운데 문장·조운벼는 kg당 지난해 1,450원에서 1,550원, 윤광벼는 kg당 1,390원에서 110원 올린 1500원에 수매하기로 결정함
 - 인근의 철원농협도 이사회에서 오대벼 수매가를 지난해 kg당 1,580원에서 1,620원으로 결정하였음. 이들 농협은 벼 수매가를 놓고 진통이 있었지만 올 들어 비료·농약·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원가가 오른 것은 물론 물가 상승비 등을 최대한 감안해 벼 수매가를 인상했다고 밝혔음
 - 통상 강원도 철원군, 특히 동송농협의 자체 수매가 수준이 타 지역의 농협·민간RPC·도정공장 등의 수매가 협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수확기 산지 쌀값 및 공공비축미 수매가, 쌀 직불제 변동직불금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농협주유소 직원 면세유 빼돌려...연간 14만 3천리터 이상
 - 박민수 민주당(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직원들이 농협주유소에서 2008년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 13차래(86만ℓ)에 걸쳐 면세유를 빼돌리면서 총 14억여원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이후 횡령액을 보면 2008년 1억 5,719만원, 2009년 5,879만원, 2010년 1,672만원, 2011년 9,209만원, 2012년 4억 4,497만원, 2013년 6억 3,240만원 등임
 - 이 가운데 2008년부터 6년동안 변상해야 할 금액 14억원 중 12억 8,000만원 가량만 변상된 상태임
 - 박민수 의원은 "매년 평균 14만 3,000ℓ가 넘는 면세유를 농협직원들이 빼돌린 것은 면세유의 부정사용보다 더 엄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단속은 매우 느슨하다"며 "주기적으로 판매현황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농축협 조합장, 형 확정 전 직무정지 '위헌'
 -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김모 전 조합장 등이 형 확정 전 직무를 정지시킨 농협법 해당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음
 -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조합원이나 일반의 공공 신뢰 등을 훼손하고,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공직자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없고, 수형·신형의 경우에도 직무정지 조항이 없다. 해당 조항은 자의적인 차별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음
 - 이번 위헌 판결로, 조합장·이사(상임이사)·감사(상임감사) 등에 대한 형 확정 전 직무정지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